

민주 상임위원장 배분 고심

정 前KBS 사장 해임 집행정지 기각

지경위원장 싸고 진통...상임위 배정도 만만찮아

민주당이 20일 국회 원 구성 협상 타결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에 따른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은 모두 6석. 일단 법사위원장에 유선호,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 김부겸, 농수산식품위원장에 이낙연 의원이 각각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당초 이낙연 의원(영광·함평·장성)은 지식경제위원장(과거 산업자원위원장)이 유력했지만 3선급 가운데 유일하게 농촌이 지역인 점에서 농수산식품위원장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종걸, 정장선 의원이 모두 지식

경제위원장 자리를 원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진통이 일고 있다. 특히 두 의원은 지경위원장이 아니라면 아예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민주당도 상임위원장 문제로 한나라당처럼 경선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급해진 것은 원내 지도부다. 통상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 선수와 연계를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이가 더 많은 이 의원이 유리하지만 정 의원이 처음부터 지경위원장을 강력히 원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내 지도부는 경선까지 가는 상황만은 막겠다면서 두 의원을 상대로 주내에 의견 조율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의원 중 한 명이 후반기 국회를 노리고 상임위원장을 포기할 경우 남은 한노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추미애 의원이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고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노릴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위원장은 신나균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김상희, 최영희 의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국토해양위, 기획재정위, 지식경제위, 보건복지가족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이른바 '노른자위 상임위'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법사위, 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환경노동위 등은 신청자가 미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법원 "해임 위법성 인정 못해"… 검찰 불구속 기소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이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 전 사장은 이번 해임 처분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 소요되는 해임 무효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20일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원 부고 취소소송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556억원만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회사가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2천448억원을 받지 못해 그 차액인 1천892억원을 손해 보도록 한 혐의다.

2천448억원은 KBS가 1심 소송에서 승소해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1천764억원과 가산 이자인 684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소송을 계속했다면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진 위기에 몰리자 의도적으로 적자 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전 사장이 기소됨에 따라 국제청과의 소송을 취하할 것이 임기 연장을 위한 일시적 적자 메우기 수단이었는지,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한결 부드러운 국회 김형오(왼쪽) 국회의장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통무예 진흥과 세계 무술올림픽 창건 세미나에 참석, 그동안의 불편한 감정을 털어내듯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전제야당 본격 '시험대'

수적 열세·지지를 하락 등 부담...첫 정기국회사 승부 별러

18대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관련은 한나라당이 전 상임위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대야소 정국에서 '소야'의 수(數)적 열세를 딛고 견제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 그러나 전망은 암울하다. 촛불정국의 후유증에서 벗어난 정부가 정국 주도를 위한 대대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한나라당이 각 상임위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이를 제지할 수단이 미약치 않다.

지도부의 리더십 및 전략 부재 등으로 당 지지율도 10% 후반대로 다시 주저앉은 뒤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성'의 회복과 대어(對與)

투쟁력 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8대 국회 여야의 첫 대결인 정기국회에 승부를 걸겠다고 버티고 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 이른바 'MB노믹스'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과상공세와 대안 제시를 통해 '야당다운 야당'의 면모를 과시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당장 장관 인사검증과 감사위원, 대법관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원내와 전면적으로 결합, 정기국회 전략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뉴민주당'위원회 등 비상설 특위와 정책분야별 18개 상설특위를 곧 가동하고, 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소'(가칭)를 이달 말 출범, 현안 대응력을 보강키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내달 5일 쇠고기 청문

국조특위 합의...총리 참석 일괄답변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8일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29일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기관보고를 실시하고 내달 5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병국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총리가 기관보고에 참석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총리도 특위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여야가 전날 원구성 협상에서 예초 20일 까지였던 국조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달 5일로 연장하면서 '쇠고기 국조'는 가까스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또 취소키로 했던 국조특위 문서 검증반의 미국 현장실사 일정도 재추진키로 했으나 미국 측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 후임 사장 공모에 24명 응모

20일 마감된 KBS 후임 사장 공모에 모두 24명이 응모했다.

KBS 이사회는 "사장 후보자 공개 모집 결과 모두 24명이 지원했다"면서 "내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해 3-5배수로 압축한 뒤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선정, 임명예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응모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25일께 최종 후보자를 임명 예정할 예정이다.

KBS 사장 후보로는 강대영 전 KBS 부사장과 김근우 전 KBS 이사, 박홍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KBS 안팎에 알려져 있다.

한편 KBS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7시에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마감하며 21일 오전 낙하산 반대와 이사회 저지를 위한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이사회가 낙하산 인사를 KBS 사장 후보로 임명예정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 4시/ 6시**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인생역전 개강 9월1일 첫년도 주야간반 모집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학원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19회시험 10월26일, 원서접수 8월18일~8월27일까지 본학원에서 원서접수 대행해드립니다.

개강 동형문제풀이 9월 1일 9월 1일~9월 12일 (1단계 위임연) 9월 16일~10월 5일 (2단계 이론핵심요약정리) 10월 6일~10월 18일 (3단계 최종 점검정리)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제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신해법적지본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을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 화정이전, 오제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세복빌딩 4층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09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유력한 개강이 9월1일입니다. 無等과 함께 합격의 꿈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가직 **7.9급 공무원** 합격 강좌

강좌직종: 행정부세원찰공정호진지무목축산

하반기 시험 **개강 9월1일(주-야간반 모집)** 합격 회원 모집

● 전일: 9급 세무직 및 전문직 9월 27일 209명 모집
● 전일: 제2회 8, 9급 기술직 9월 27일 119명 모집
● 통합선관위: 9급 행정직 9월 27일 70명 모집

● 6개월 (총)회원 80명
● 1년 (총)회원 120명
● 합격시까지 170명

● 귀하의 합격을 위해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고시명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안) ☎ 222-4560

www.mdgosl.co.kr

44년 전통!! 본원출신 전국수석 배출!! [송은영님 평균 96.7점] 합격률1위!!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개강 9월1일

시험에 꼭! 출제되는 엄선된 문제 꼭꼭강제 강과! 합격률 올리겠습니다!

19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합격을 위한 1차 전검승부 "적대합격반" 수강생 모집

● 개강: 9월1일 ● 모집인원: 선착순 50명 (7기미김유) ● 강의일정: 9월1일~10월17일

● 강의장소: 본원 (매주 월,수,목 오후반) 첨단 (매주 월,화,목 야간반)
● 수강료: 200,000원 (강독출판사 문제집 제공)
● 교수진: 연방 신명대학교수, 학계는 산관직 교수

공인중개사 전문 www.landkor.com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구)비터점 점점점 광주은행 4